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에는 꼭 들러야 할 3곳이 있다.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 강진의 성지(聖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 지역은 고려청자 도요지와 다산초당, 그리고 용혈암(龍穴菴)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혈암의 역사적 지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강진군이 읍을 '다산과 용혈암'이라는 향토사를 펴내면서 용혈암 터를 성지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현지에서 학술세미나와 추모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다시 찾은 '잊혀진 성지'

용혈암은 고려 명승 원묘국사 요세(了世·1163~1245) 이후 천인(天因), 천책(天冊), 정오(丁午) 등 백련사 주지였던 국사(國師) 네 분이 은퇴 후 주석했던 암자다. 당시에는 인근을 지나는 고관대작들이 우산을 접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할 정도로 존경받는 곳이었다.

백련사 남쪽 덕룡산에 위치한 이 입자는 100여 평 규모로, 근세까지 청자불상

과 5층 석탑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두 유실되고 그 터와 암굴 2개만 남아 있다.

'잊혀진 성지' 용혈암은 다산 정약용의 은둔처이기도 했다. 다산은 유배시절(1808~1818년) 매년 한 번 씩 이곳을 찾

강진 용혈암을 아십니까

아 문인이자 대학자인 진정국사 천책을 거졌다. 다산은 천책의 문집인 '호산록' 발문(跋文)에서 "신라와 고려에서 3대 문장가를 가려내라한다면 최치원(857~?), 천책(1266~1277), 이규보(1168~1241)를 들 수 있다"며 "스님의 시는 맑고 굳세게 되풀하지 않고, 학문은 막힘이 없고 재주는 명민했다"고 극찬했다.

강진 군민들의 용혈암 사랑도 컸다. 가뭄 등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용혈을 찾아 기도했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초·중학교의 단골 소풍 터였을 정도로 명승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80년 2월 이후, 용혈암을 찾는 발길이 끊긴다. 지척에 규사광산 허가가 나는 바람에 노천채굴(21년)과 지하 채광(11년)이 33년이나 계속되면서 돌가루가 사방을 뒤덮고 지표면은 물론 땅속까지 크게 훼손된 탓이다. 이 일대에 이처럼 유리천연인 규사채취를 위해 파헤쳐져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

이 보기 흉하게 방치된 명승이 10여 곳에 육박한다.

광산 허가 당시 뜻있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산업개발이라는 명분에 밀려 철저히 무시됐고 일부는 욕고도 처

했다고 한다. 이 시절 '용혈암'만이 이런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개발이 최우선 하던 때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구호와 개발만능주의에 밀려 삶의 원형질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작정 쓸어버리거나 파헤치고, 덮어버리거나 막는 경우가 허다했다.

새마을운동의 '새벽 종소리'와 함께 아름답던 돌담은 블록 담으로 교체됐고, 숲한 개펄과 천일염전도 사라져야 했다. 서울이나 광주 같은 대도시의 한 복판을 흐르며 먹 감고 빨래하는 남민을 선사하던 국토의 핏줄기 같았던 개천들의 운명

은 또 어땠는가. 악취의 소굴로 손가락질을 받다가 콘크리트 뱀질이나 당하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복원해야"

우리는 하지만, 50년도 채우지 못하고 옛 것을 다시 찾고 복원하는 형편이 되었다. 나중에 '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개발연대식 토건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의 단초가 되는 오명을 뒤집어쓰긴 했지만, 체계적 복원은 그 주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드라마까지 연출했다. 돌담을 다시 쌓고 있고(슬로시티 청산도의 돌담마을을 가보시라!), 간척지를 바다로 되살려내는 역간척도 모색되고 있다.

원형 복원이 추억을 되살리는 상실감의 치유를 넘어서 먹고 사는데도 더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수 천 년 한민족에 먹거리를 제공해온 농업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는 MB정권의 대책 없음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용혈암의 천책 스님이 남긴 선시(禪詩) 한 대목을 요즘 위치자들이 새겼으면 좋겠다.

"백년도 못 살거면서 왜 그리 바쁜가(一生多至百年忙)?"
<선필기자> jnews@kwangju.co.kr

시설

對北 정보라인 이틀 넘도록 먹통이었다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국가정보원·국방부·외교통상부 등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북한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발표할 때까지 51시간여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출석,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정보·안보라인 모두가 이번 사건을 알지 못했고, 이 기간 이명박 대통령 발일까지 이뤄졌던 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북한이 특별방송까지 예고했는데도 이를 김정일 사망과 연관짓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그룹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 날인 18일 정보를 입수해 몇몇 언론에 배신책을 단행해야 한다. 대북 정보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불만에 휩쓸 수밖에 없다.

금이 간 '민주의 종' 6년 간 모를 수 있나

5·18 광주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민주의 종'이 제작 과정에서 깨져 뺄린 채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감리기관인 서울대가 제작 후 실시하는 비파괴검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데다 광주시도 납품 당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적 책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광주 금남로에 설치됐다가 현재 광주환경시설공단에 보관중인 '민주의 종'이 하대에 15cm 가량 금이 갔으며, 외관은 찌그러져 5cm 정도 인장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당시 제작에 관여했던 인사의 제보로 6년여 만에 드러났고, 제작사인 성종사 대표 원광식(인간문화재 주철장)씨도 이를 인정, 사과했다. 원씨는 "시한이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찌그러진 채 보냈다"며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말까지 새로 납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 14억6천여

만 원의 모금해 제작에 들어갔던 민주의 종이 이렇게 허술하게 제작·감리·납품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제작사는 물론 감리를 맡은 서울대, 발주처인 광주시 등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취재가 확인 결과, 종 아래쪽 하대 위쪽에 15cm, 60cm 가량의 금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라니 시 관계자의 책임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또 시방서상 전통 범종제조방식인 '밀랍주조방식'으로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도 확실히 '셀룰로' 주조 기법'을 쓴 점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민주의 종'은 광주 민주·인권 도시의 상징물이다. 깨진 채 납품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제작사와 감리기관을 철저히 감독해 새로 제작하는 종 만큼은 그 취지를 신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옥영석

생두를 수확하여, 가공공정을 거쳐 볶은 후 한 가지 혹은 둘 이상의 원두를 섞어 추출하여 음용하는 기호 음료.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등 다양한 맛과 상쾌한 자극, 흥분과 중독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커피. 커피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Would you drink a cup of coffee?"를 외우며 영어를 배웠던지, 3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것을 낭만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다.

커피, 카피, 코피톨라

만나면 커피, 커피, 커피를 마셔댄다.

18일 무역협회가 밝힌 올해 커피수입액은 10월까지만 해도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수입량으로 추정할 때 국민 한 사람이 연평균 670잔을 마셨다니, 커피를 가까이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를 제외한다면 성인들은 1000잔 이상을 마셨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로도 직장인 1인당 하루 평균 3.4잔의 커피를 마신다 한다. 커피가 석유 다음가는 세계 교역량 2위의 선물상품이라 해도, 설탕, 수산물, 전봉투 등을 포함한 우리 농식품수출액이 작년 한 해 60억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아름 있더라도 옆가지를 잘라야 한다



신종해

장성에 있는 방장산을 다녀왔다. 노령산맥 끝자락에 자리 잡은 방장산은 주변 편야 지대에 우뚝 솟아 신비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하여 예로부터 지리산, 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이라 불려졌다. 산 정상에서 고장평야와 멀리 서해바다를 볼 수 있으며, 중간 봉우리에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가득이 있어 매년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그리고 주변 축령산에는 국내 최대 조립지인 편백나무 숲이 있으며, 탐방로를 따라 산책을 하면 편백향의 삼림욕을 할 수 있어 건강에 아주 좋다. 특히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한데 나무의 크기는 집을 지을 정도의 목재이며, 높이 또한 하늘을 찌를 것처럼 곧게 자란 나무 수백만 그루가 조성되어 있어 갑탄이 절로 난다. 이 많은 나무를 어떤 조경사가 얼마만큼

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렇게 잘 가꾸었을까? 성장단계마다 그 시기에 옆가지를 정정하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곧게 훌륭한 목재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옆가지를 자를 때 아픔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편백나무 속에 섞여있는 소나무도 햇볕을 받기 위해 편백나무 크기와 똑같이 곧게 자라났다. 식물도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또 식물원에 가면 많은 분재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분재들도 조경사의 머릿속 프로그램에 따라 정정을 하고 영양과 물을 주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훌륭한 분재가 되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런 조경사와 같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의 대를토록 줄 큰 재목과 누구나 옆에 두고 싶어 욕심내는 분재와 같이 키우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태어나면 처음 가정에서 자연적인 상태 즉 생활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진다. 부모님이 발생 사안별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또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준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질문을 한다. 할아버님들은 힘들

어 할 때도 있다. 내가 어렸을 적 농경사회 부모님들의 교육방법을 소개하면 아랫목 교육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더욱 그러했다. 온돌방이라 방이 식을까봐 항상 이부자리를 방에 깔아놓는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는다. 그러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 위쪽으로 간다. 대가족 식구들이 다 들어와 앉았으면 앉았는 순서가 그 가정의 어른과 아이들의 순서다.

평소에 어머니의 교육 덕택이다. 어른이 들어왔는데 아랫사람이 아랫목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어머니는 바로 야단을 친다. 또 다른 사항은 밥을 지어 그릇에 담은 순서다. 옛날에는 가난하여 쌀을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말 그대로 쪼꼬리밥을 먹을 때의 이야기다.

보리쌀을 먼저 한번 삶아서 보쌀 바꾸기에 담아놓고 다시 필요한 만큼 솥에다 앉히고 그 위에 쌀을 조금 얹어 밥을 지은다. 그리고 밥이 다져지면 위에 얹어놓은 쌀이 흩어질까봐 어머니가 생각하는 제일 어른의 밥을 먼저 담는다. 주로 할아버님이나 할머니의 밥을 먼저 담고 다음 아버지 그리

불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입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차와 식품이 너무 흥대받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예기다.

전통차집이라면 으레 한복차림의 주인이나 가야금 산조만 울리는 공간으로 만들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드나들기에 부담이 없도록 신나는 가요와 팝송도 틀고 3000~4000원이면 마실 수 있는 상급한 유자차, 미용식 울무차에 커피도 함께 파는 하이브리드형 카페로 바꾸어 보면 또 어떨까? 이런 년 전 '커피, 카피, 코피' 연화가 있었다.

제목만으로 연상하자면 커피(Coffee)만 마셔준데 외국문화만 흉내(Copy) 내다 진짜 커피 솜을 가 격정이다.

<'05년 수상자·농협 유통센터분사 차장>

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순서로 그릇을 들고 밥을 담는다.

이처럼 밥에 들어왔을 때나 밥을 담을 때 옆에서 보는 아이들은 집에서 어느 분이 웃어른이고, 아랫사람인지 안다. 내 위치가 어딘지 생활에서 알았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할 것 없이 인격교육과 지도방법이 가장과 학교에서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귀엽고 안쓰런 마음에 아이들의 뜻을 그냥 그대로 받아 준다. 그러다 보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1등을 하라고 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방치된 고3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용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를 살해한 일들이다. 이제 아이들 지도방법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바뀌어야 한다. 조경사처럼 옆가지를 아픔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자를 땀 잘라야 한다.

오나오나 그래 그래가 결국 만나니 자녀가 되지 않겠지, 잘못된 지적과 호통을 아끼고 죄 불효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이 적지는 않았는지, 칭찬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민주와 인격교육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의 미래가 희망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광주 선광학교장>

無 等 鼓

중국 고대법본인 36계 가운데 11번째 계격이 이대도강(李代桃僵)이다.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넘어진 다.'라는 뜻으로, 작은 손해를 보는 대신 큰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다. 이 계격은 중국 악부시집(樂府詩集)에 실린 '계명(鷓鴣)'이라는 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복숭아나무 우물가에서 자라고 자두나무 뿌리를 감아먹으니,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죽었네. 나무들도 대신 희생하기를, 형제는 또 서로를 잊는구나(桃生露井上, 李樹生桃旁. 蟲來糶桃根, 李樹代桃僵. 樹木身相代, 兄弟還相忘.)'

형제간의 우애를 빗대어 노래한 이 시가 나중에 병법에 응용되어, 작은 것을 희생하는 대신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뜻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과 조문 사절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19일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

한은 이에 맞서 대남 군사도발과 선전·선동에 주력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한 성의있는 사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는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의 표시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 '삼십육계'의 저자라면, 잠시의 원한을 참고 먼 훗날의 실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조의를 표시하는 데 한 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홍행기 정책부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방학 캠프 많이 만들어야

곧 다가올 겨울방학을 앞두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겨울 체험캠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종류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캠프가 있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 현실적으로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캠프의 경우 참가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해 학생의 신분으로는 너무 비싸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해외 캠프의 경우 단 며칠간의 행사인데도 수백만 원이나 하는 캠프가 수도득하며 스키캠프도 수십만 원에 이르러 서민층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모처럼 방학을 맞아 부모를 떠나 독립심과 자립심, 리더십,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캠프에 많이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대부분 참가 비용이 너무 비싸 서민 입장에서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장애우 등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전혀 없

어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으로 각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지자체 영리를 떠나 우리 미래의 2세들이, 꿈나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자연을 벗삼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캠프에 많이 보내고 좀더 저렴하고 의미 있는 캠프를 많이 운영했으면 한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한다면 더욱 유익하고 흡수적인 캠프가 되리라 본다. **▲우항학·광주시 북구 우산동**